



정부 “명백한 범죄 행위” VS 광주시 “단순 실수, 종결된 사안”

‘공문서 위조’ 진실 공방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과정)공문서 위조를 놓고 정부와 광주시간 설전이 이어지면서 그 실체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사인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강은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당시 문체부는 물론 총리실의 공직기강 조사를 통해 실

무자의 실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대회유치 당일이 같은 고발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준 문체부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여기에 경정도시시는 국가차원의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절실했으면 실무 공무원이 1차 초본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넣었겠느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공문서 위조의 전말을 짚어봤다.



강은태 광주시장이 19일 오전(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마리나호텔에는 열린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공동취재단>

- ① 초본만 총리 서명 짜집기... 중간·최종본은 정부서 승인
- ② 서명 위조 윗선 지시·묵인 여부 따라 파장 달라질 듯
- ③ 정부, 발표 앞두고 문제 제기... 광주시 “이해할 수 없다”

◇공문서 위조 어떻게 이뤄졌나= 광주시는 지난 2월21일, 정부로부터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체부 장관의 사인이 기재된 ‘정부가 수영대회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 이 보증서는 FINA(국제수영연맹)측에 제출해야 하는 ‘유치 제안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였다. 당시 보증서를 확인한 광주시는 문서의 형식을 좀 더 부드러운 편지체로 바꾸면서, 지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정부가 육상도시와 스포츠

의 발전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필했다. 총리의 사인은 보증서 원본의 사인을 스캔해서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코넬 마르쿠레스쿠 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 등 실사단 4명이 지난 5월 1일 정훈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기에 앞서 광주시가 ‘사인을 가필(위조)한 초안파일을 정부에 건네면서 드러났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당시 문체부는 실사단 관계자의 면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을, 6월 17일엔 최종본을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다.

◇검찰 고발 법적 조치는=정부가 광역자치단체장을 국무총리 서명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문제가 된 의향서는 초안에 불과한데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지적받은 뒤 중간과 최종본에는 원래의 보증서를 사용한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이다. 하지만, 행정의 수반이나 다른 것은 국무총리의 서명이 임의로 도용한 것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서명 위조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파장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 위·변조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 본에는 원래의 보증서를 사용한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이다. 하지만, 행정의 수반이나 다른 것은 국무총리의 서명이 임의로 도용한 것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서명 위조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파장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문서 위·변조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 본에는 원래의 보증서를 사용한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

◇정부 의도에 의구심도=일부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투표서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정부 의도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가 신인도가 걸린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제대회

대구 육상대회 땀 전체 사업비 50% 지원

정부 “예산지원 불가” 형평성 논란

정부가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대회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제스포츠 경기 대회 경기장 시설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광주시의 재정보충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가기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 대회에 대해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 10월 문체부 유치 최종 승인을 통과했다.

특히 정부가 2011년 열린 대구육상대회 때는 전체 사업비의 50%수준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호남 자치단체간 차별 논란도 일 전망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 등을 통해 지자체 유치 스포츠 행사를 통해 지자체 지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부터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차별없는 정부 지원을”... “한점 의혹 없어야”

지역민 반응... 여론 향배는

민주 광주시당 “지역 경사에 재 뿌렸다” 시민단체선 “선거용 치적쌓기 책임져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쾌거를 올린 광주시가 ‘공문서 위조’라는 안초를 만나면서 지역 내 여론이 얼얼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를 환영하며, 정부에 차별 없는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

당은 “대회유치가 확정되기 직전 정부가 취한 조치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새누리당, 보수연론 등 4박자가 잘 맞아 떨어진 플레이로, 광주의 경사에 재를 뿌렸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당은 이어 “하지만 서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실무자의 실수는 법률

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광주시의 일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광주시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 만큼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위조된 문서가 최종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온 광주시민이 열원하는 수영대회 유치도 성사된 만큼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되 먼저 포용하는 대담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기 광주시의원은 이날 “정부도 지난 4월 직원의 실수로 총리사인이 짜집기 된 사실을 알았고, 시는 이를 즉각 시정했다고 한다”며 “대회를

유치한 마당에 정부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광역시장을 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논평을 통해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파문은 민선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국제대회가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 21은 그러나 “문체부가 밝힌 대로 공문서위조 사실을 지난 4월에 알았음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고 대회유치 발표 당일 공문서위조에 대해 검찰 고발을 발표한 배경이 혹여나 호남과 민주당 단체장을 흡입 내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략이라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 하나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0만원	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0만원
지상1층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0만원	지상 3층~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0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